

사회

광주·전남 이주여성 8천여명 힘겨운 겨울나기

베트남·필리핀댁들 “이런 추위 처음”

“경제한과까지 겹쳐 정신없어요”

“올 겨울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추운 날씨는 난생 처음이에요.”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들이 지난해 말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혹한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 지난해 2008년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두 8천81명. 이주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은 3천139명이다. 이어 베트남 2천155명, 필리핀 1천236명, 캄보디아 248명 등으로 절반 가까이 상해(常夏)의 동남아 국가 태생으로 이들은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한을 겪어내느라 하루하루가 더욱 고달프다.

국적 겨울나기는 ‘공포’ 그 자체로 여겨졌다. 광주가 한국에서 비교적 따뜻한 곳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버티씨의 올 겨울 나기는 유난히 벅겁다. 2007년 광주에 처음왔던 버티씨는 3년 사이 가장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느라 매일 고역이다. 버티씨가 태어나고 자란 베트남의 연 평균기온은 섭씨 26도 내외. 그에겐 최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뎌내리란 공통 그 자체다.

결혼 2년 만인 지난해 3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된 버티씨는 난방이 충분치 못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한 달 평균

180만 원 정도 버는데, 이 중 고향에 송금해야 할 돈 110만 원을 빼 나머지 70만 원으로 생활한다. 여기서 한 달 동안 먹을거리와 약값 등을 빼고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버티씨는 “바늘로 살갓을 찌르는 듯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만난 필리핀 이주여성 자스민(가명·25)씨. 두 아들을 둔 그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째다. 그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월세 25만 원, 난방비 10만 원, 교육비 30만 원을 내고 남은 5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남편은 지난해 3월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둔 뒤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남편이 쓰러지면서 고부간 갈등도 심해졌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추위를 참지 못해 가족이나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일러를 오렌지 간 쥬스만 마시는 게 전부이다.

요즘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한글 교실에 가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여성들과 마음을 열고 수다를 떨 수 있는 데다, 빨리 한글을 배워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매서운 추위는 이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전 병관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다. 자스민씨는 “올해 겨울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라. 애들 돌보고 무서운 추위에 내 몸 챙기랴 정신이 없다”고 울먹였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한 기업체 지하 기숙사에 사는 베트남 출신 버티(가명·24)씨 등 3명이 두터운 옷을 겹겹이 끼입고 이불로 몸을 감싸 한기를 달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컨소시엄 파트너 공사 선급금 58억 빼돌려

건설사 대표 징역형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게 지급된 수십억원대 공사대금을 몰래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

선)은 10일 컨소시엄 업체의 공사 선급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J건설 대표 신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사 선급금을 빼돌린 횡령액이 크고 최대 피해자인 D건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

을 누우치고 있고, D건설에 공사 사업권을 양도한 점, 또 다른 피해자인 Y건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역사공원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인 D, Y건설에 취약할 58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어음 상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이템·게이미니

현금거래 무죄 판결

대법원 확정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일반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이미니의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이미니를 현금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이미니인 ‘아렌’ 2억3천400여만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고 2천여명에게 되팔아 약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렌’은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사는데 사용되며 현재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100만 아렌당 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환전을 금지한 게이미니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이어야 하지만 아렌은 우연적인 방법에 의한 게이미니로 볼 수 없다며, 게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게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친구 장애수당 1,600만원 ‘슬쩍’

합평경찰, 10대 구속

합평경찰은 10일 장애수당을 입금한 적금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한 김모(18)군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2월 27일 합평동 합평동의 한 사회복지사실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서모(24)씨가 관리하는 이모(18·지적장애 3급)군의 장애수당 적금통장과 도장

을 훔쳐 1천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온 김군은 나주의 한 정신병원을 오가며 잦은 치료를 받아온 이군이 지난 5년여간 받은 장애인 수당이 많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이 사용하고 남은 현금 800여만원을 회수해 이 군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자택 방화 의심 50대

승용차서 음독 의식불명

10일 오전 9시30분께 영광군 군남면 삼각산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최모(54)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약물중독이 의심돼 병원에서 위세척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남 자신의 집이 화재로 전소된 직후 사라졌다. 경찰은 최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는 지인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방화 가능성 여부도 수사 중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목포 주택가 20대 女 변사

목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낮 12시20분께 목포시 동사동 자재 사이에 다방여중원 김모(여·26)씨가 끈으로 양손이 묶인 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 공업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쪽으로 가다가 천막 밖으로 여성용 신발이 보이 갈래 들춰봤더니 여성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성기자 sslee@

나원침 (8001) 김장동



전화사기에 공무원도 속아

강진경찰은 10일 강진군청 농협출장소에서 발생한 900만원대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587만원, 367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모두 95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만취 소란 20대 출동 경찰에 주먹질

상다발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술을 마시고 길에서 행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김모(28)씨를 공무원행방배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H통닭집 앞에서 길을 가던 이모(여·47)씨를 다짜고짜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동부경찰서 소속 산수지구대 김모(39)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마구 욕설을 퍼부은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데다 요즘 되는 일도 없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Nawonchum' (나원침) featuring a central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textured object, possibly a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product. The text is dense and includes promotional messages and contact information.